

# 아마존과 합심... IPO 추진... 11번가, 이커머스 주름 잡는다

이르면 올해 아마존 상품 서비스 SSG닷컴 맞손 '오늘장보기' 제공  
우분과 전략적 제휴 '배송 강화' 신규 중소상공인에 수수료 지원

이커머스 기업 11번가가 시장 주도권 장악에 속도를 낸다. 치열한 이커머스 업체간 경쟁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업무협약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장기화 되면서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면서 비대면 소비가 일반화되자 그에 따라 이커머스 업체들의 거래액이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온라인시장 내 거래액은 145조12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8.4% 늘었고 이미 2019년 전체 거래액(135조2640억 원)도 뛰어넘었다.

11번가는 모회사 SK텔레콤과 시너지를 통해 차별화된 상품과 혁신적인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11번가 이상호 사장(왼쪽)과 우정사업본부 박종석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번가

고객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SKT는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11번가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순차적인 IPO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11번가의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 같은 달 사업 혁신을 위해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지분 참여 약정을 체결한 것도 호재다.

11번가는 아마존의 상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올해 서비스를 론칭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11번가의 IPO 등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성과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주인수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신선식품 강자 SSG닷컴과도 손을 잡았다. SSG닷컴의 새벽배송을 연동해 11번가 '오늘장보기'에서 제공하게 된 것.

고객은 SSG닷컴의 새벽배송 서비스

를 11번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배송이 완료된다.

11번가는 올해 장보기 서비스에 SSG닷컴 새벽배송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GS프레시물 새벽배송 도입을 준비 중이며, 이 외에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11번가에서의 장보기 쇼핑 편의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배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도 했다.

11번가는 우정사업본부 대전우편물류센터 등을 통해 상품의 입고/보관/출고/반품/재고관리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800여명 규모의 대전우편물류센터를 활용해 매일 자정 전까지 주문한 상품에 대해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24시(자정) 마감 오늘발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분기 내에 11번가에서 당일 24시 이내에 주문한 상품의 전국 익일 배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1번가는 "개선된 배송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는 우

체국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해 물류비용 절감과 마감연장에 따른 매출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자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입점하는 중소상공인 판매자들을 위해 수수료 지원부터 성장 포인트 최대 40만원, 노출구좌 지원 등 판매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3대 특별 혜택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단순히 수수료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점 후 안정적인 정착까지 돕는 성장 단계별 혜택으로 구성됐다.

기존 판매자들에게는 '야간라이브' 교육을 새롭게 시작했으며, 유튜브 채널 '11번가 셀러존TV'를 통해 판매자 고민 상담, 성공판매자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판매자들의 원활한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는 '빠른정산' 서비스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 주문 당일 발송하는 판매자에게 배송완료 다음날 정산해주는 무료 서비스로, 지난달부터 정산 금액 비율을 90%까지 상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꼬북칩, 하루 10만봉... 누적 1100만봉 판매

(초코츄러스맛)

오리온, 출시 4개월 매출액 110억  
온라인서 입소문 타고 구매욕 자극



오리온은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판매량 1100만봉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루에 약 10만봉씩 판매된 셈이며, 누적매출액으로도 1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선보인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은 출시 50일 만에 350만봉 판매를 돌파했다. 이후 두 달여간 판매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며 판매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33억 원의 월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오리온은 꼬북칩 초코츄러스맛 출시

초기 인기를 견인했던 온라인 반응이 자발적인 입소문으로 지속 확산되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달콤한 군것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입안에서 '바삭사르르' 녹는 꼬북칩 특유의 식감과 어우

러지는 진한 초콜릿의 대중적인 맛도 여전히 호평 받고 있다.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의 인기가 중국, 미국 등 해외로도 전해지며 현지에서도 제품 출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현지 생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스낵 보고장 미국 등지에서도 꼬북칩 초코츄러스맛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오리온은 해외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맛으로 라인업을 확대해 꼬북칩을 초코파이의 뒤를 잇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켜간다는 전략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모델들이 13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스테이 솔루션' 기획전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 홈플러스 '홈스테이 솔루션' 기획전

집밥·홈베이킹 등 전 카테고리 할인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홈플러스의 판매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0일 축산 15%, 베이커리 19%, 와인 65%, 컵술커피 26%, 운동용품 20% 등 전년 동기 대비 신장세를 보이며 많은 소비자들이 식사부터 운동까지 실내 생활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밥·홈베이킹 등 전 카테고리 할인

이에 홈플러스는 '집밥'부터 '홈베이킹', '홈레이닝' 등 이른바 '집콕 생활'을 더욱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전 카테고리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홈스테이 솔루션' 기획전을 진행하고 밝혔다.

먼저 집밥의 필수 식재료인 신선식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냉동 LA식 꽃갈비(2.3kg, 미국산/호주산) ▲냉동 찜갈비(2.3kg, 미국산/호주산) 갈비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 이마트24, 전국 곳곳서 보조배터리 공유

백퍼센트와 맞손 '충전돼지' 서비스

이마트24가 보조배터리 공유 플랫폼으로 변신한다.

이마트24는 스타트업인 백퍼센트와 손잡고 보조배터리 공유경제 서비스 '충전돼지'를 오피스상권, 대학가 등 수도권 소재 50개 매장에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24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일상화됨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돼지를 선보이게 됐다.

충전돼지는 보조배터리 대여 및 반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보조배터리 대여 후 이마트24뿐만 아니라 영화관, 카페, 식당 등 충전돼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반납이 가능하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대여한 충전돼지

를 이마트24에 돌려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충전돼지 기기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주요 상권에 설치돼 있으며, 충전돼지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고객이 쉽게 보조배터리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객이 충전돼지 기기에 있는 QR 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네이버, 구글 등의 아이디로 접속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결제가 완료되면 충전돼지 슬롯에서 5000mAh 용량의 초고속 충전 보조배터리가 나온다.

/신원선 기자

## 롯데백 '산천어 밀키트' 강원 지역경제 살린다

롯데백화점이 산천어 밀키트를 선보이며 강원도 지역 경제 살리에서 앞장 선다.

롯데백화점은 14일부터 31일까지 롯데온 내 롯데백화점몰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는 롯데백화점 노원점 식품관 매장에서 강원도 화천군의 싱싱한 산천어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겨울 축제가 취소돼 판로가 막힌 화천 산천어의 소진을 돕고자 마련됐다.

산지를 직접 찾지 않으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식재료인 산천어를 고객들에게 밀키트 등의 형태로 제공해 이색적인 미식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CJ제일제당, 햇반컵반 덮밥류 3종 출시

CJ제일제당은 '햇반컵반 참치마요덮밥' '햇반컵반 간장계란덮밥' '햇반컵반 스팸김치덮밥' 등 덮밥류 3종(사진)을 새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컵밥시장의 인기 메뉴가 기존 곰탕, 국밥 등 '가정식 메뉴'에서 다양한 '외식형 메뉴'로 확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햇반컵반 외식형 대표메뉴는 스팸마요덮밥, 치킨마요덮밥, 버터장조림비빔밥 등으로, 지난해 햇반컵반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며 햇반

컵반 성장을 이끄는 효자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햇반컵반은 2015년 4월 출시 후 가정식 메뉴부터 외식에서 인기 있는 메뉴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며 연 1000억원대 매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보다 세분화, 다양화하는 소비자 입맛과 취향에 맞춰 신제품 출시를 통해 '외식형 메뉴'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